

[특집]

교회 안의 평신도 교육: 선교하는 제자와 공동체*



정 준 교

[다음세대살림연구소장]

-
1. 들어가며
 - 1.1.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평신도 개방의 의미
 - 1.2.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이 직면한 상황
 2. 평신도 교육의 현재
 - 2.1. 다층적인 신자 집단
 - 2.2.1. 생명교리
 - 2.2.2. 사회교리
 - 2.2. 부실한 평신도 교육
 - 2.3. 하느님과과의 인격적 만남
 3. 교육내용 제안
 - 3.1. 교육구조 변화
 - 3.1.1.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 3.1.2. 예비신자 교육의 내실 강화
 - 3.1.3. 미사 전례를 삶의 중심으로
 - 3.1.4. 교회와 신자의 교육 협업
 - 3.2. 교육과정 변화
 - 3.2.1. 획일적 교육에서 다변화된 교육으로
 - 3.2.2. 단계별 교육에서 과업별 교육으로
 - 3.2.3. 인지적 접근 교육에서 경험적 접근 병행 교육으로
 - 3.2.4. 사후교육에서 예방교육으로
 4. 나가며
-

들어가며

1.1.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평신도 개방의 의미

2018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핵심적 키워드로 삼았던 것은 ‘동반자사목’이었다. 그리고 동반자 사목을 도출한 세계주교대의원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회의의 기본 전제가 평신도를 위한 공의회라는 말도 듣는¹⁾ 제2차 바티칸공의회(이하, ‘공의회’)의 정신이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1965년 12월 8일 ‘공의회’ 폐막메시지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대를 표명하였다.

“공의회는 세계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살아갈 젊은이들을 위해 빛을 밝혔다.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세상의 요구에 마음을 열고 형제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형제들을 위한 봉사에 젊은 힘을 쏟아 부으라. 열정으로 가지고 선배들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라.”²⁾

한국교회는 ‘공의회’ 개최 이후인 1964년 9월부터 미사를 신자들을 향해 봉헌할 수 있게 되었고, 1967년 3월부터 한국어 미사 봉헌에 대한 교황청의 허락을 받는 등 변화를 해왔다.³⁾ 지금의 한국교회 평신도와 사제 대부분은 공의회 이후 입교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1965년에 바오로 6세께로부터 특별히 부탁받았던 젊은이들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더 나은 세상 건설에 필요한 헌신을 위해 솔하게 열려온 공의회 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움, 그리고 각 교구의 시노드들은 ‘표면상의 위기’가 없어 보여서인지,⁴⁾ 끝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⁵⁾ 이를 예상하듯, 1966년 한국주교회의는 공의회에

1) Y. 콩가르, 「제2차 바티칸과 평신도」, 『신학전망』 6(1968),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4쪽.

2) 바오로 6세,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폐막메시지』(*Nuntii Quibusdam Hominum Ordinibus Dati*), 1965.12.08.

3) 최정근, 우광호, “[광복50주년 특별기획] 광복50년, 한국 천주교회를 조명한다(중)”, 『가톨릭신문』 vol.1966, 1995.8.20, 5쪽.

4) 오세일, 「한국천주교회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과 사목적 제안」, 『사목연구』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35(2015/겨울), 90쪽.

5) 한국 교회의 사제 대부분은 이구동성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외친다. 이들은 공의회 문헌 중에서도 특히 『사목헌장』과 『평신도교령』을 적극적으로 인용한다. 그러나 막상 사제 본인에게 탈권위와 이견에 대한 수용이 요구되면, 평소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예찬론자들이 느닷없이 트리엔트공의회의 신봉자로 돌변한다. 성경 못지않게 은혜로운 이 위대한 문헌의 내용이 생명을 잃고 사문화되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을 하였다.⁶⁾

“우리 한국 가톨릭이 공의회를 일종의 지나가는 행사로 보는 인상을 주며, 공의회의 중요성과 그 목적하는 바에 대하여 미온적(微溫的) 태도를 가지게 되어, 전체 교회와 호흡을 같이 못하며 세계적 사조에 뒤떨어져 있게 되는 원인은 공의회가 가르치는 바와 의결한 사항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⁷⁾

이에 비해 공의회 정신을 반영하여 변화와 참여를 가져온⁸⁾ 대표적인 예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신학부와 철학부 정규과정을 1972년 봄학기부터 평신도에게 개방한 것이다. 평신도 신학자 양성과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평신도들과의 만남을 통한 세상 경험을 목적으로 학제가 남녀공학으로 개편되었고, 전 과목 청강제도도 도입되었다. 그 결과 1972년 첫 학기 신부지망생 51명, 일반학생 13명이 입학하였다.⁹⁾

는 현장이다. 정용화, 「평신도가 바라는 교회: 본당 사목위원이 바라는 교회」, 『가톨릭평론』 18(2018), 우리신학연구소, 143쪽.

6) 이미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의 과거에 대해 4가지를 반성하였다. 그것은 1. 교회일치에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겸손하게 용서를 청하는 반성(일치교령 3,7). 2. 과학의 정당한 자율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대립과 논쟁을 불러 일으켜, 신앙과 과학이 배치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해 반성(사목현장 36). 3. 신앙은 강요대상이 아님에도, 반대현상도 있었음에 대해 반성(종교자유에 대한 선언 12). 4. 무신론의 원인 중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발이 포함되어 있다(사목현장 19). 그 중 청소년사목과 관련된 것이 2번째, 3번째와 4번째이다. 곧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반종교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고, 혼란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이를 해결해주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신앙은 자유인데, 왜 강요하느냐고 따질 때에 어떻게 이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왜 신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물을 때에 어떻게 이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바오로 사도는 57년경 고린토에서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과연 성경에,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로마 2,24)라고 하였다. 오경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과거를 반성했다”, 『인천교구 주보; 빛과 소금』, 2009.7.19, 연중16주일.

7) 한국주교단, 「특별발표 한국주교단 사목교서: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교회」, 『경향잡지』, 58:6(1966.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쪽.

8) 김진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신학전망』 146(2004),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41쪽.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선배 신부들의 회고에 의하면, 교내에서 외부인과는 물론이고 신학생들끼리의 대화도 금지했던 시절이 있었고,¹⁰⁾ 라틴어 이외의 말을 하면 벌을 받던 시절도 있었으며,¹¹⁾ 평신도 사도직이란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음¹²⁾을 생각할 때, 이는 천지개벽,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시대를 경험한 선배 신부가 한 다음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바오로 6세 교황의 바람처럼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나의 사랑하는 본 대학 재학생들이여 제군은 우리보다 매우 행복하며 시대와 병행하고 있으니만큼 시대를 앞질러 배우고 자유로운 생활을 자제함으로써 이해 취사에 그르침이 없이 각자가 열성으로 서로 다투어 관상 생활에 적극 보강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선배들이 못 이루고 넘긴 것을 성덕으로 충당하여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회고록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¹³⁾

1.2.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이 직면한 상황

원로 선배 사제의 ‘시대를 앞질러’에 대한 언급은 그가 겪은 사목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의 상황은 그 사제가 경험했던 환경과 또 다른 차원에서 도전적이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천주교회 지표 가운데, 대신학교와 관련된 것들의 추이이다. 미사참례율과 한국천주교회의 영세자수¹⁴⁾ 추이는 한

9) 김창렬, 「평신도도 입학이 허용된 대신학교 학제 개편에 대하여」, 『경향잡지』 64:3(1972.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36-238쪽;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1855-200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07, 972쪽.

10) 신성우, 「학창생활 十五年」,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1855-200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07, 606쪽.

11) 구천우, 「성직생활의 회고」,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1855-200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07, 612쪽; 신성우, 「학창생활 十五年」, 610쪽.

12) 구천우, 「성직생활의 회고」, 613쪽; 신동철, 「우리나라 지역교회법 안에 나타난 평신도 법조문 연구」, 『가톨릭신학』 10(2007), 한국가톨릭신학학회, 143쪽.

13) 구천우, 「성직생활의 회고」, 613쪽.

14) 영세자수 추이에서 군종교구 영세자수를 제외한 것이 b이다. 군종교구의 1999

국교회 공동체의 성사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대신학교에 입학한 교구출신과 수도회 출신 입학생수의 추이, 교황청립과 교구설립 수도회의 한국인과 외국인 수련자수의 추이, 주일학교 학생수 추이는 성소자수의 추이를 보기 위해 살펴보았다.

[표 1] 한국천주교회 지표들의 추이 (2012~202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사참여율	22.7	21.2	20.7	20.7	19.5	19.4	18.3	18.3	n.a.
학교입학1*	166	143	147	124	110	108	137	123	149
학교입학2	37	27	13	34	22	28	34	22	13
수련자남1a	49	45	35	27	30	30	30	35	15
수련자남2a	3	2	1	2	1	2	4	4	1
수련자녀1a	194	189	204	180	150	142	115	83	76
수련자녀2a	35	25	23	31	26	19	26	30	34
수련자남1b	11	27	23	9	22	18	14	21	10
수련자남2b	11	8	11	7	21	26	23	23	17
수련자녀1b	115	100	79	82	81	55	40	25	27
수련자녀2b	22	33	45	34	35	71	88	103	110
초등부	101,792	97,946	98,376	96,410	95,636	94,509	90,589	89,377	67,734
중등부	37,538	36,190	35,527	33,366	31,464	29,606	27,910	28,311	23,100
고등부	22,901	22,139	22,428	21,336	20,791	18,872	16,169	15,326	13,344
총영세1	132,076	118,830	124,748	111,143	111,139	96,794	80,905	81,039	30,285
총영세2	103,096	95,595	97,858	90,515	86,314	78,350	68,430	66,890	27,167

* 학교입학1 : 교구 신학교 입학생수; 학교입학2: 수도회 신학교 입학생수; 수련자남1a: 교황청립 남자수도회 한국인 수련자수; 수련자남2a: 교황청립 남자수도회 외국인 수련자수; 수련자녀1a: 교황청립 여자수도회 한국인 수련자수; 수련자녀2a: 교황청립 여자수도회 외국인 수련자수; 수련자남1b: 교구설립 남자수도회 한국인 수련자수; 수련자남2b: 교구설립 남자수도회 외국인 수련자수; 수련자녀1b: 교구설립 여자수도회 한국인 수련자수; 수련자녀2b: 교구설립 여자수도회 외국인 수련자수; 초등부: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수; 중등부: 중등부 주일학교 학생수; 고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학생수; 총영세1: 연간 총영세자수; 총영세2: 연간 군종교구 영세자수를 제외한 총영세자수.

년부터 2018년까지의 모든 영세자수를 합하면 20년간 457,152명으로 부산교구의 2018년 신자수 457,622명과 비슷해진다. 게다가 군종교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한국교회 전체의 20~24세 청년 영세자 중 78.72%(2020년), 58.72%(2021년)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은 한국교회 전체의 20~24세 청년 영세자 중 80% 이상을 배출하였다(2021년 58.72%, 2020년 78.72%, 2019년 87.07%, 2018년 85.30%, 2017년 86.44%, 2016년 87.44%, 2015년 82.83%, 2014년 86.18%, 2013년 84.57%, 2012년 87.10%, 2011년 87.00%, 2010년 85.76%). 이것은 군종교구에서 영세한 신자들의 누적 수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해준과 동시에, 이를 한국교회의 전체영세자수에 합하면, 판단의 오류가 야기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영세자수에서 군종교구의 영세자수를 제외한 지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통계, 1999~2018.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교회의 몇 개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교회에서 9년간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다. 미사참례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2012년의 상황이 가장 양호했다. 곧 2012년의 미사참례율이 22.7%로 가장 높았고, 2012년의 교구와 수도회 신학교 입학생수가 166명과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의 교황청립 남자수도회의 한국인 수련자수와 여자수도회의 외국인 수련자수 및 교구설립 여자수도회의 한국인 수련자수가 각각 49명과 35명 및 1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일학교의 초·중·고등부 학생수가 가장 많았고, 연간 총영세자수와 군종교구를 제외한 총영세자수도 가장 많았다.

곧 지표 대부분에서 해가 갈수록 영세자수가 줄고, 미사참례율이 낮아지고, 신학교 입학생수가 줄어들고, 수도회의 한국인 수련자수가 적어지며, 주일학교 학생수와 총영세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7년부터는 교구설립 남녀수도회에서 모두 한국인 수련자수보다 외국인 수련자수가 지속적으로 많았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3가지 지표를 더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전국적인 출생아수와 사망자수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부터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아졌다. 곧 이민자와 같은 외부유입이 없으면,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는 상태가 되었다.

[표 2] 2019년~2021년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추이

단위 : 명

	2019년	2020년	2021년
출생아수 A	302,676	272,337	260,500
사망자수 B	295,110	304,948	317,800
A-B	7,566 △	32,611 ▽	57,300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사망자수, 조사망율, 기대수명, 2019~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2019~2021년.

두 번째로 교구별 신영세자수와 선종자수를 비교하였다. 그것은 신영세자수가 선종자수보다 적으면 교회의 신자수가 감소하는 상

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2020년에 춘천, 인천, 원주, 청주, 마산, 안동, 광주대교구에서 선종자수가 신영세자수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2021년에는 춘천교구에서 선종자수가 더 많았다.¹⁵⁾

추가로, 교구별 유아영세자수와 선종자수를 비교하였다. 그것은 김남수 주교가 제안한 “자연증가율 $[(\text{유아영세자수}-\text{사망자수})/\text{신자수}]^{16)}$ 을 적용한 것이다. 교회가 신영세자 없이도 자연 성장하려면, 사망자수보다 유아영세자수가 더 많아야 한다. 천주교회 공동체 안에서 출생한 아기는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태어난 지 몇 주 안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¹⁷⁾고 교회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負)라는 것은, 신영세자가 없었더라면 교구의 신자수가 감소하는 상태에 처했음을 뜻한다.

분석결과 2016년에는 서울, 수원, 의정부의 수도권교구와 제주교구, 군중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마이너스 자연증가율이 나타났고, 2017년에는 제주교구와 군중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마이너스 자연증가율이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군중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는 마이너스 자연증가율이 나타났다.¹⁸⁾ 곧 2018년부터 군중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는 신영세자가 없으면 신자수가 감소하는 상태에 있다.

세 번째로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한국천주교회의 2018년 말 현재 시점에서, 신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주민등록인구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보았다. 그림을 보면, 20세부터 54세까지의 주민등록인구와 신자의 연령별 분포가 매우 비슷하다.¹⁹⁾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1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0 한국천주교회 통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 한국천주교회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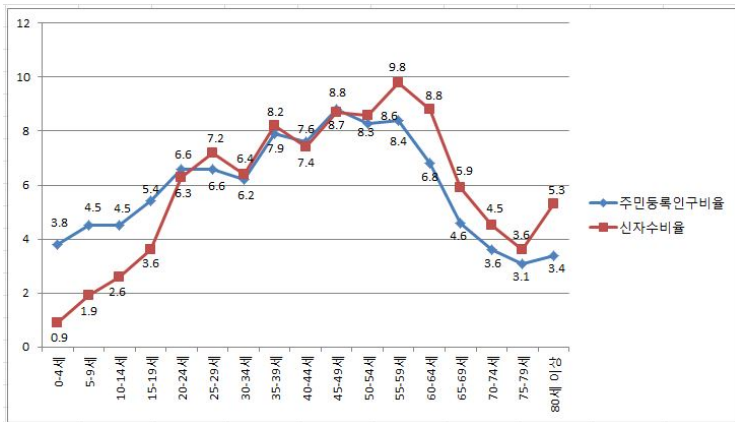
16) 김남수, 「태아의 생명권과 생명 수호운동」, 『경향잡지』 84:11(1992.1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42쪽.

1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법: 라틴어-한국어 대역(수정판)』, 1판 7쇄, 제867조.

1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6 한국천주교회 통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7 한국천주교회 통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한국천주교회 통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9 한국천주교회 통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0 한국천주교회 통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 한국천주교회 통계.

주민등록인구와 신자의 연령별 분포가 비슷한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19세 이하의 연령대를 보면, 주민등록인구와 신자의 연령별 분포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0-4세의 연령대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²⁰⁾ 이러한 연령별 분포는 숫자 면에서, 청소년들의 인구대비 신자비율이 성인들의 인구대비 신자비율보다 낮음을 말해준다.²¹⁾ 그 결과가 대상자가 없어서 첫영성체 교리반을 운영하지 못하는 본당들이다.²²⁾



[그림 1] 2018년 주민등록 인구와 천주교 신자의 연령대별 비율 추이 ²³⁾

이러한 일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저출산,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19)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18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8.12.31.현재)』, 2019.05.10, 3쪽.

20) 이것은 청년들의 낮은 혼인성사 비율과,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둔 청년 부모들이 거의 공식적으로 성당에 나오지 않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1) 정준교, 「펜데믹 이후의 주일학교: 영유아부는 필수」, 『한국가톨릭문화연구』 1(2022),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33-34쪽.

22) 이지혜, “첫영성체 가정교리 해마다 줄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vol.1549, 2020.02.02, 1쪽.

23)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18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8.12.31.현재)』, 3쪽.

새로운 신생아들이 교회 유지에 필요한 수만큼 태어나지 않았거나,²⁴⁾ 유아영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⁵⁾ 전통적으로 유아영세는 신앙생활의 큰 유입경로였음²⁶⁾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혼인성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아기가 있는 청년 부모들이 유아영세를 시키지 않고, 아기를 둔 신영세자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신자인 청년 부모가 유아영세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교적 대비 5% 미만에 불과한 청년의 미사 참여율로 상징되는 청년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교회 상황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많은 청년은 주일학교 졸업 후 모든 교육을 마쳤으니 성당에 그만 가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 주일학교 교육을 이수하면 모든 교육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신앙교육 인식이 청년 부모들에게 더는 성당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그리고 하루를 숨 쉴 틈 없이 보내야 할 아이들에게 성당을 의무로 가게 할 수 없다는 부모의 생각도 작용한다.

주중에 치열한 직장생활을 한 청년 부모들이 낮과 밤이 바뀐 아이들과 밤새 실랑이 벌이다 주일날 오전 미사를 봉헌하기는 쉽지 않다.²⁷⁾ 그리고 쉽지 않게 성당에 가서 미사 봉헌을 하려는 청년 부모들이 겪는 난감한 상황들은 부모들의 마음을 교회에서 점점

24) 정준교, 「세월호 참사 이후의 청소년사목: 청소년 인권을 중심으로」, 『청소년사목연구: 동행』, 1:1(2015), 수원교구청소년사목연구소, 10-111쪽.

25) 현실은 교회법 조항과 크게 다르다. 신자 인구 중 0-4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그것보다 월등히 낮음에도, 본당 신부들은 유아세례자의 수나 비율에 변동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정확히 확인은 어려우나,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받도록 하지 않는 신자들이 사실상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편집부, 「유아세례에 관한 재고(再考)」, 『사목』 193(1995.0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구대교구 봉덕성당의 경우, 신자들의 세례연령이 '1년 이하' 8.2%, '1~3년' 7.6%, '4~10년' 20.1%로 나타났다. 신현일(1998), 「천주교 신자에 관한 의식조사 — 대구대교구 봉덕천주교회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1998),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쪽.

26) 같은 글, 206쪽.

27) 몸이 힘들어도, 미사 참례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아기를 깨우고 유모차에 태워 성당에 오는 청년 부모들도 있다. 그리고 집에서 부부가 번갈아 가며 한 사람은 아기를 돌보고, 한 사람은 미사를 봉헌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멀어져 가게하고, 이를 보거나 들어서 아는 청년들도 성당을 멀리 하게 된다.²⁸⁾

교회는 미사 시간만이라도 이들이 미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봉사자를 통해 청년 부모들을 돕는 배려를 해야 한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 오후 2~4시간대에 유모차를 가지고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배려는 교회의 몫임에도, 지금까지 교회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放棄)해 왔다.

따라서 19세 미만 신자의 연령별 비율이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비율보다 낮은 것은 단순한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특징이 아니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예비부모에 대한 사목 기회를 방기한 평신도 사목의 실패가 합작한 참화이다.²⁹⁾

위의 지표들로부터 한국 사회의 인구가 줄고, 교회의 신자 수 증가는 둔화되고, 청소년 신자들의 감소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한국 교회에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대신학교 입학생수와 수도원예의 한국인 성소자수³⁰⁾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하느님께서 원하실 한국 교회 반전의 기회를 성소의 못자리인 가정과 복음선포의 장인 사회를 책임 맡은 평신도의 교육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 효

28) 성당에서 어린아이가 울거나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떼를 쓰면 죄지는 사람처럼 몸을 낮추고 아이에게 편잔을 주다가, 미사 시작한 지 20분도 안 되어 밖으로 뛰쳐나온 적이 있는 부모는 안다. 성당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운 좋게 유아방이라도 들어가면 먹을 것을 서로 나눠 먹이고,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여주며 미사 시간을 보낸다. 부모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든 견뎌 내려고 간신히를 쓴다. 간신히 미사가 끝나면 이렇게까지 미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그런 상황에 어떤 사제는 부모들을 향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좀 조용히 하실 수 없어요?” 좀 조용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윤경, 「나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젊은 부모의 신앙교육 고민」, 『가톨릭평론』 15(2018), 우리신학연구소, 112~113쪽.

29) 정준교, 「씨뿌리는 자세로 배려하고 동반하는 사목을」, 『청소년 사목의 현실과 방향: 2019 청소년사목 2차 심포지엄』,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소년국, 2019.5.21, 208쪽.

30) 변화된 세상에서는 사제와 수도자를 또 다른 의미의 성적 소수자라고 보기도 한다. 신한열, 「성소수자와 교회」, 『가톨릭평론』 32(2021), 우리신학연구소, 102쪽.

과로 대신학교 입학생수와 수도원에의 한국인 성소자수가 증가할 수 있을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평신도 교육의 현재

한국교회에서의 일반적 평신도상에 대해 ① 세상은 속된 곳 — 거룩함에 대한 열등감, ② 성숙이원론 — 신앙 따로 삶 따로, ③ 마음의 평화 — 개인적 영성에 치우침이라는 주장이 있다.³¹⁾ 그리고 평신도는 ① 교회 안의 미약한 역할, ② 낮은 참여, ③ 실질적인 공식적 직무 부재³²⁾ 등이 언급되어 왔다.

2.1. 다층적인 신자 집단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인으로서의 종교 생활을 하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천주교의 윤리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³³⁾ 신앙(faith)은 신념(belief)과 태도(attitude)와 행동(action) 그리고 소속되기(belonging)를 포함한 총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의 정체성은 천주교회에 소속되어 천주교의 종교생활을 하고, 천주교 교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천주교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³⁴⁾

‘공의회’ 교부들은 미사 참여를 ‘신자들의 능동적인 미사 참여’라는 소제목 아래,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여있지 않고, 예식과 기도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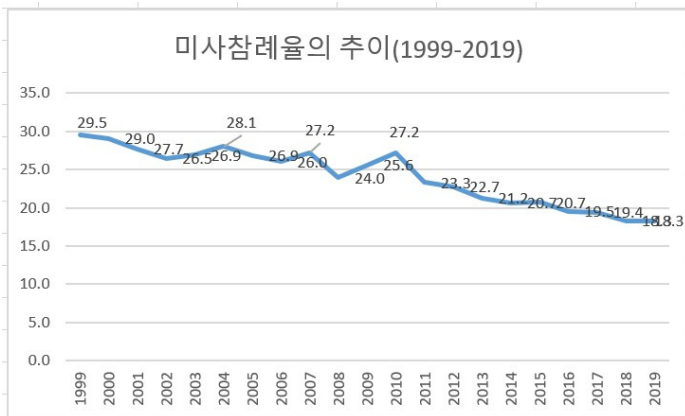
31) 경동현, 「평신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경향잡지』 110:4(2018.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6쪽.

32) 정희완,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 『가톨릭신학』 29(2016), 한국가톨릭신학학회, 93. 102~103쪽.

33) 곧 천주교의 정체성은 주로 신앙과 윤리의 재현(representation)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천주교의 정체성과 제도적 교회에 대한 헌신이 충돌되기도 한다. 같은 글, 105~106쪽.

34) 같은 글, 105~107쪽.

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주님 몸의 식탁에서 기운을 차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제의 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제와 하나 되어 흠 없는 제물을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법을 배우고,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하느님과 일치하고 또 서로서로 일치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³⁵⁾



[그림 2] 미사참례율의 추이 (1999-2019)

그러나 현실은 위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신자들만 미사에 참여하고 있고, 급기야 2016년부터는 미사 참여 신자가 전체 신자 대비 20%도 안 되는 실정에 처하게 되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미사참례율은 29.5%에서 18.3%로 10.2%나 감소하였다. 곧 수많은 신자가 이 신앙의 신비를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³⁶⁾ 대하고 있다.

35) 제2차 바티칸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48항.

36) 장신희, 「신자들의 미사참례」, 『가톨릭신학』 4(2004), 한국가톨릭신학학회, 302쪽.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제기되는 것이 물질만능주의의 확산에 따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즐거운 주말로 여기고 여가나 스포츠를 즐기는 신자들과 냉담자의 증가였다.³⁷⁾ 그러나 주일미사를 쉽게 거르고 일에만 매어 사는 신자들³⁸⁾과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종교의 유용성을 체험하지 못해 떠난 이들,³⁹⁾ 교회에 커다란 간극을 느껴 교회를 떠난 이들,⁴⁰⁾ 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환자나 집에서 장기 요양 중인 노인, 다른 종교로 개종한 이들⁴¹⁾과 같이 오늘날 본당에서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신자가 많다.

그리고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소수의 신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본당 신자들에게 본당은 그저 미사 참여 공간, 단순한 전례 공동체에 불과하다.⁴²⁾ 나아가 본당에서 오래 활동하는 다수의 신자는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교회가 이런 것이었던가?’하는 의문과 걱정을 한다.⁴³⁾

이에 비해서 주일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긍심이 높고, 미사 전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⁴⁴⁾

37) 평화신문, “사설: 복음화율에 앞서 미사참례율 높여야”, 『평화신문』 vol.1114, 2011.4.24, 2쪽.

38) 이관진, 「평신도가 본 오늘의 한국 평신도」, 『가톨릭신학과 사상』 13(1995), 신학과사상학회, 104쪽.

39) 박진희, 오세일, 「가톨릭 청년 냉담자의 탈교회화 현상연구」, 『종교연구』 80:3(2020), 한국종교학회, 177쪽.

40) 신한열, 「성소수자와 교회」, 『가톨릭평론』 32(2021), 우리신학연구소, 96-97쪽; Jerry Filteau, Unusual study asks former Catholics why they left church, National Catholic Reporter, 2012.5.23.

41) 강인철, 『한국 천주교회의 쇄신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 우리신학연구소, 2007, 98쪽.

42) 정희완,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 『가톨릭신학』 29(2016), 한국가톨릭신학학회, 110쪽.

43) “[...] 일절 그런 것 없다가 미사가 재개되니 그동안 모아두었던 봉헌금 준비해서 오라는 공지는 씬쓸하게 만들었다.”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좋았으나, 천주교회가 어려운 사회와 이웃을 위해 공적으로 한 일이 없는 것같아 아쉬웠다.” 정용화, 「평신도가 바라는 교회: 본당 사목위원이 바라는 교회」, 『가톨릭평론』 18(2018), 우리신학연구소, 141쪽; 경동현, 「팬데믹 시대, 친교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커진 경고등 : ‘팬데믹 시대의 신앙실천’ 설문조사 주요 결과와 의미」, 『가톨릭평론』 28(2020), 우리신학연구소, 17쪽.

이들은 1921년에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전신인 예수성심신학교 출신의 이원영 신부가 『미사 참여하는 묘한 법』에서 미사 참례를 통해 주모의 흥은을 입는다고 말한 그들이다.⁴⁵⁾ 이러한 경향은 팬데믹 이후 적극적인 신자들과 소극적 신자들의 양극화 현상⁴⁶⁾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한국천주교회 지표들의 추이 (2016-2020)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자수 (A)	5,741,949	5,813,770	5,866,510	5,914,669	5,923,300
고해성사수 (B)	4,483,072	4,462,566	3,789,949	3,804,796	1,718,523
미사참례수 (C)	1,121,020	1,130,599	1,075,089	1,080,687	
고해성사율 (B/A=D)	78.08	76.76	64.60	64.33	29.01
미사참례율 (C/A=E)	19.52	19.45	18.36	18.27	
D-E	58.56	57.31	46.24	46.06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교회의 몇 개 지표를 살펴보면, 미사참례율은 20% 이하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고해성사율도 80% 이하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고해성사율과 미사참례율의 간극이 58%~46%로, 고해성사수의 중복계산 가능성을 고려해도, 두 비율 사이의 간극이 엄청나다. 이로부터 아래의 [그림 3]처럼 신자 전체 중에 고해성사하는 집단이 있고, 그 가운데 일부로 미사 참례하는 신자 집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곧 신자 집단은 동질적이 아니고, 다층적이다.⁴⁷⁾

44) 신현일, 「天主教 信者에 관한 意識調査 : 대구대교구 봉덕천주교회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1998),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3-218쪽.

45) 1921년에 이원영 신부는 『미사 참여하는 묘한 법』에서 “미사 참례하는 날은 주모의 흥은을 입는 날이요, 미사 참례할만한 날에 아니 하는 날은 재앙의 날이니라.”라고 하였다. 백신옥, 「미사 참례하는 날은 주모(主母)의 흥은(鴻恩)을 입는 날-김원영 신부」, 『상고우서』 39(2013), 수원교회사연구소, 3쪽.

46) 경동현, 「팬데믹 시대, 친교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켜진 경고등 : ‘팬데믹 시대의 신앙실천’ 설문조사 주요 결과와 의미」, 『가톨릭평론』 28(2020), 우리신학연구소, 20쪽; 경동현, 이미영, 「팬데믹 2년, 교회의 사목적 대응과 전망 그리고 가톨릭 시민의 가능성」, 가톨릭신문사 2021, 5쪽, 각주 11.

47) 강인철은 1995년에 한강 성당을 대상으로 냉담 신자를 조사하였다. 그는 냉담자를 1차로 21가지로 분류하고, 2차로 12가지로 정리한 후, 3차로 6개로 구분하였



[그림 3] 신자 전체, 고해성사자, 미사참례자 비교

2.2. 부실한 평신도 교육⁴⁸⁾

전현호는 오스트리아 천주교회가 당면한 미사참례자수 감소, 신자수 감소, 수도자수 감소, 사제수 감소와 질적 저하, 본당 유지의 어려움, 세속화, 학교교육과 교리교육의 부조화, 급변하는 일반문화와 변화를 주저하는 교회문화, 현대인의 강해진 자의식, 매스미디어 등의 문제 해결책으로 교리교육의 현대화, 청년의 신앙교육 프로그램, 관심과 배려, 함께 하는 시간의 제공, 기성세대의 올바른 믿음과 기쁜 신앙생활을 꼽으며, 그 실마리를 청소년들이 성당에

다. 그가 언급한 6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사망: 사망 ② 행방불명: 외국 이민, 결혼 후 분가, 이사 ③ 잠정적 냉담자: 해외 혹은 지방근무, 주일 근무, 외국 유학, 고3, 재수생, 군복무, 환자, 장애인, 고령 ④ 오인된 냉담자: 교회에 가끔 출석, 교회에 자주 출석, 다른 본당에 출석, 성직자, 수도자 ⑤ 진정한 냉담자: 다른 종교로 개종, 그 밖의 이유로 교회 불출석, 혼배조당으로 인한 불출석, 실제적 냉담 ⑥ 미상: 미상, 비해당; 20대 미만과, 40대 이상은 오인된 냉담자들이 가장 많고, 20대와 50대는 진정한 냉담자가 가장 많으며, 30대는 행방불명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진정한 냉담자는 40~50대 세대가 가장 많았다. 반면, 20~30대 냉담자들은 잠정적 냉담상태이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오인된 냉담상태에 있었다. 그는 냉담자의 교회 복귀 내지 회도를 위한 노력을 ‘잠정적 냉담자’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일 것으로 주장하였다. 강인철, 『한국 천주교회의 쇄신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2007, 98. 106~108쪽.

48)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는 필리포스에게 이사와 예언서의 내용을 설명 듣고 세례를 받았다(사도 8.31).

즐거 나오게 하는 것에서 찾았다.⁴⁹⁾

2.2.1. 생명교리

정준교의 연구에 의하면, 열심히 신자 집단인 청년성경 공부를 이수한 수원교구 청년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생명 교리에 대해 교회와 입장을 달리하였다.⁵⁰⁾ 곧 생명교리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생각은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 허용(3.17점) > 인공피임 허용(3.12점) > 인공유산 허용(2.75점) > 동성애 허용(2.65점) > 사형제도 허용(2.59점) > 안락사 허용(2.46점)”의 순서로 허용적이었다.

이에 비해 의정부사목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인공피임 허용(3.67점) > 안락사 허용(3.64점) > 인공유산 허용(3.61점) > 사형제도 허용(3.35점) > 동성애 허용(2.03점)”의 순서로 허용적이었다.⁵¹⁾ 그리고 의정부교구사목연구소의 조사에서는 동성애 허용에 대해 젊을수록 허용적이었다($p < 0.01$).⁵²⁾

그러나 이들 문항들은 모두 천주교회의 생명교리에서 반대하는 것들이다. 곧 교회는 “낙태와 유아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⁵³⁾ 낙태, 유아 살해, 안락사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그릇되고 사악한 의미, 곧 타인 위에 군림하는, 타인에 대항하는 절대적인 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참된 자유의 죽음이다.”라고 가르쳐왔다.⁵⁴⁾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생명교리에 대한 생각은 가톨릭 교회의 생명교리와 다른 것이었다.

49) 전현호, 「Wien 교회를 통해서 본 가톨릭교회의 실상과 미래 전망」, 『가톨릭신학』, 24(2014), 한국가톨릭신학학회, 82-94. 107쪽.

50) 정준교, 「청소년 사목을 위한 생명 생태계 회심의 필요성-청소년 생명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사목연구: 동행』, 2:1(2016), 천주교수원교구청소년사목연구소, 143쪽.

51) 천주교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 『2013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자들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 2013.10.13, 84-85쪽.

52) 천주교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의 2013년 data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이다.

53)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 51항.

54) 요한바오로 2세,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 20항.

정준교의 연구에 의하면, 열심히 신자 집단인 청년 봉사자들 가운데 연구참여자들은 혼인과 가정공동체의 핵심 개념인 창조성, 몸, 자비, 선물(내어줌), 가정교회 등에 대한 질문을 문장 그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 문장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어려운 한자 말이어서 들었어도 기성세대의 말이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⁵⁵⁾

그리고 이제까지 대부분의 주일학교에서는 혼인과 가정공동체에 대해 가르치지 않아 왔다.⁵⁶⁾ 자유주의적 성윤리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교회의 성윤리는 전혀 전해지고 있지 않아 왔다.⁵⁷⁾ 이것은 기존의 평신도 대상 학습 체계에 큰 하자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준교의 연구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사회의 법이 충돌할 때, 조사대상자 중 가장 많은 34.1%(73명)는 ‘자기 원칙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응답은 2.8%(6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응답 양상은 의정부사목연구소 조사의 응답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2.8%들의 응답비율은 의정부교구의 11.9% 보다 크게 낮은 비율이었다.⁵⁸⁾

[표 4]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 청소년들의 비교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전적으로 법을 따름	1.4% (3명)	3.3% (65명)
아마도 법을 따름	18.2% (39명)	21.8% (435명)
모르겠음	17.3% (37명)	23.1% (461명)
아마도 교회 가르침 따름	26.2% (56명)	질문 없음
전적으로 교회 가르침 따름	2.8% (6명)	11.9% (237명)
내 원칙을 따름	34.1% (73명)	39.9% (795명)
합계	100% (214명)	100% (1993명)

55) 정준교, 「혼인과 가정공동체를 위한 교회와 청년세대의 대화: 사랑의 기쁨과 몸의 신학을 중심으로」, 『누리와 말씀』 49(2021), 인천가톨릭대학교, 360~363쪽.

56) 주일학교 교리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신앙언어로 번역하여, 인격, 창조, 몸, 자비 등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57) 임채룡, 『한국청소년 성윤리에 관한 윤리신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6.11, 89쪽.

58) 천주교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의 2013년 data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법과 교회 가르침이 충돌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생명교리에 대한 생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곧, ‘전적으로 교회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집단은 다른 선택을 하는 집단들보다, 교회의 생명교리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가 높았다(사형제/ 안락사/ 인공피임: $p<0.001$, 인공유산/ 동성애/ 인공수정: $p<0.05$). 곧,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사형제, 안락사, 인공유산, 인공피임, 동성애, 인공수정 및 출산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다.

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 조사에서도, 생명교리 부분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곧, 법과 교회 가르침이 충돌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생명교리에 대한 생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곧, ‘전적으로 교회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집단은 다른 선택을 하는 집단들보다, 교회의 생명교리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가 높았다($p<0.001$).⁵⁹⁾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로부터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가 교회의 생명교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곧 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지 ‘전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의향이 없기에, 교회의 생명교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반면 수는 많지 않아도 교회 가르침을 알고 또 지키려는 경우도 있었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교회의 생명교리를 모른 채 자유주의적 주장에 휩쓸리는 신자들이 많을 수 있다.⁶⁰⁾

2.2.2. 사회교리

예수님의 양부(養父) 성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다.⁶¹⁾ 또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저 사람은 목수이며,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렀다.⁶²⁾ 그리고 한국에는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59) 같은 글.

60) “인류 역사는 하느님 자녀들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죄로 어지럽혀질 것이다.” 『사목현장』, 40항.

61) 마태 13, 55.

해은 JOC 전통도 있고, 요한보스코의 정신을 따르며 치열하게 사는 살레시오회 수도회와 수녀회도 있다.

그러나 현재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자 청소년들은 ‘노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⁶³⁾ ‘힘듦’ ‘노력’ ‘월급’을 순서대로 떠올린다. 그 대신 ‘보람’과 ‘인간’이라는 생각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직업은 ‘아파트 경비원’ ‘마트계산원’ ‘농부’ ‘인터넷설치기사’ ‘버스기사’의 순서였다.⁶⁴⁾

이러한 응답들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곧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 청소년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노동자는 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곧 이들은 현실과 크게 괴리(乖離)된 노동 인식을 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과 연계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 조사결과 수원교구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교리 수강경험자는 8%에 불과하였다.⁶⁵⁾ 교회교육, 교회언론, 사회교리 문헌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습득한 평신도들은 교회밖 일반 언론만 접한 평신도들에 비해 사회 참여와 사회현안에 대한 교리에 더 긍정적이었다.⁶⁶⁾

62) 마르 6, 3.

63) 여기서 제시되는 자료는 2018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수원교구 청소년국이 수원교구 내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을 한 77개 본당의 2,145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64) 한상규, “주일학교 청소년 노동인식 및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분석 결과”,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청소년국, 『2018년 수원교구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소년들의 노동인식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 2018. 11~13쪽.

65) 성당에서 사회교리를 배운 경험자는 171명(8.0%), 배우지 못한 미경험자는 1,966명(92.0%)였다. 정준교, 「사회교리에 따른 천주교 신자 청소년들의 신앙과 노동인식」, 43쪽.

66) 정규현, 오세일, 「천주교 평신도의 사회 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신학전망』

그리고 아래의 [표 5]에서와 같이, 사회교리를 배운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천주교 신자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하는 곳의 사장이 신자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p<0.05$).⁶⁷⁾ 곧 사회교리를 배운 청소년들이 천주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갖고, 노동현장과 신앙의 연계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표 5] 분당별 사회교리 수강 경험 유무에 따른 천주교 신자 관련 인식의 비교

번호	내 용	경험	미경험	p
1	천주교 신자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4.39	4.21	0.016
2	일할 때, 신자라는 점을 드러낼 것임	3.96	3.86	0.218
3	일할 때, 신자답게 좋은 말과 행동을 노력할 것임	4.07	3.99	0.319
4	일하는 곳의 사장이 신자이면 더 좋겠다	4.04	3.84	0.022
5	함께 일하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함께 싸워줄 것	4.02	3.98	0.603
6	신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4.02	3.95	0.403

이처럼 사회교리의 학습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보편교회’의 텍스트인 『가톨릭교회교리서』의 제4계명과 제7계명 부분에서 사회교리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⁶⁸⁾ 사회교리는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현재 주일학교에서는 현재의 신앙교육을 위한 마땅한 사회교리 교재와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⁶⁹⁾

그런데 현실적으로 천주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 제공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풍성하고, 체계가 잡혀 있으며, 장기간 별도의 교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일학교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214(2021),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2~203쪽.

67) 정준교, 「사회교리에 따른 천주교 신자 청소년들의 신앙과 노동인식」,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청소년국, 『2018년 수원교구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소년들의 노동인식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 2018, 44쪽.

68) 『가톨릭교회교리서』, 주교회의교육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2198~2200항, 2419~2425항.

69) 황종렬, 「한국 교회 청소년 복음화의 어제와 오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와 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제23차 학술회의 자료집』, 2005.06.25, 26쪽.

주일학교의 교육에 큰 결함이 있음은, 기존의 평신도 대상 학습 체계에 큰 하자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과 평신도들이 하느님과的人格적 만남을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하기는 어렵다.

2.3.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⁷⁰⁾

2016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이하, ‘청소년사목위’)에서는 1년간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⁷¹⁾ 그 결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발견을 하였다.⁷²⁾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성당에 오래 나올수록, 신심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착하고 예의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신앙생활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다.⁷³⁾

청소년사목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이때 예수님께서

70) 사도 8, 31.

71)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내부 보고서; 질적 연구에서는 군종교구를 제외한 15개 교구의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 학부모, 청년, 초등 5년 이상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냉담 유무, 주일학교 경험 유무, 본반사제 유무 등을 반영한 40명을 인터뷰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16교구의 본당수에 비례한 123개 본당을 무작위 표집하였다 — 다단계 지역군락확률표집(multi-stage area clustering probability sampling). 특정한 행사가 없는 대림 제2주일에 본당에 출석한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 청년, 초등 5년 이상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72) 그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노드 2번의 결과가 같은 것을 보면, 적어도 예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수 있다.

73) 첫째,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는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대해 청소년들보다 부정적이었다. 청소년 생각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집단은 교리교사였다. 둘째, 사제와 수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직면한 사회적 고민거리에 대해 청소년들보다 생각을 적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과 가정,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셋째, 성당에 오래 나올수록, 신심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착하고 예의바르게 사는 것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다. 넷째, 스스로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갈증을 느끼고 열린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몰랐다. 다섯째, 스스로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는 제자들에게 복음화를 위한 동반자(同伴者)로서 현존하셨다. 청소년사목위에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났음에 주목하였다.⁷⁴⁾ 그리고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안에 부재(不在)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채워주기 위해,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사목위는 교회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동반(同伴)의 예술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⁷⁵⁾

청소년사목에 임하는 이들은 청소년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고, 동반자들은 청소년들과 상호 간의 존엄성과 동등성을 이루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⁷⁶⁾ 그리고 동반자들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복음화와 세상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⁷⁷⁾

그런데 동반자 사목은 말로는 멋있으나, 실현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의 본당 사제나 수도자들 중 동반의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과 가정,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고, 본당 청소년이나 교사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조차 공개하기 꺼리는 분들도 있다.

청년들이 교회에 던지는 아픈 질문 중에, “정규직인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비정규직인 우리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너무나 힘들어 성당에 왔을 때, 신부님들께서 ‘강론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어이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등이 있다.

동반의 경험을 못한 상황은 청소년, 교사와 본당 상임위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상임위원들도 서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⁷⁸⁾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 신자

74) 『청소년사목지침서』, 5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불안과 의심 속에 갇고 있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동등한 친구요 친밀한 동반자로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다.

75) 같은 책, I. 청소년사목의 정의.

76) 같은 책, 5항.

77) 같은 책, II. 청소년사목의 목적과 목표.

들이 개신교회와 달리 성당 신자들이 싹싹맏다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동반은 한번 성공했다고 해도, 매년 매번 반복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삶이 계속되므로, 동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함께 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바뀌므로, 새로운 동반이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반자 사목은 사제, 수도자, 상임위원 및 교사들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본당 공동체가 개입하여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신도의 복음화를 위한 교육도 이들과 동반하고 계시는 주님과 평신도들이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⁷⁹⁾

3. 교육내용 제안

청소년 사목이 성공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로 명확한 비전 제시가 없고,⁸⁰⁾ 개념이나 틀도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곤 하였다.⁸¹⁾ 교회 내 어떤 대상보다 체계적인 청소년 사목이 이루어질진대, 일반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경우, 교회가 신자들에게 성찬례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⁸²⁾

78) 관심이 없으니 영명축일도 서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79) 예수회 오세일 신부는 레지오 마리에, 청년성경모임이 성행한 이유를, 평신도들이 스스로 주도하며 참여하고, 나누며 봉사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종교적 영적 체험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에 조직적 차원에서 귀한 이행의 동반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세일, 『한국천주교회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과 사목적 대안』, 『사목연구』 35(2015/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99~100쪽.

80) 조재연, 「한국 교회의 청소년 사목에 비전이 있는가?」, 청소년사목토착연구회, 『활기찬 청소년사목을 위하여』,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5, 504쪽.

81) 김재득, 「청소년 사목정책 평가와 전망」, 청소년사목토착연구회, 『활기찬 청소년사목을 위하여』,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5, 509쪽.

82) 가톨릭신문, “미국 사회조사기구 ‘미사 참여율 감소’ 관련 조사”, 『가톨릭신문』,

정규현과 오세일의 연구에서, 평신도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사회 교리의 이해와 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선 교육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사회 참여의식을 성장시키고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으로 이해되었다.⁸³⁾

3.1. 교육구조 변화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교회의 관습과 행동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모든 교회 구조가 자기 보전보다는 오늘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목 쇄신을 요구하는 구조 개혁은 이러한 의미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⁸⁴⁾라고 하였다.

원론적인 교황의 말씀을 고려하면, 평신도들의 주님과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복음화가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신비, 곧 성령께 대한 감각이 절대적으로 중시되는⁸⁵⁾ 방향으로의 지금과 다른 구조적 쇄신이 필요하다.

3.1.1.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순례하는 교회는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다.”⁸⁶⁾ 베네딕도 15세 교황은 1919년에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는 사명을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떠나가 곳곳

vol.2791, 2012.4.15, 8쪽.

83) 정규현, 오세일, 「천주교 평신도의 사회 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신학전망』 214(2021),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쪽.

84)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7항.

85) 오세일, 「한국천주교회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과 사목적 대안」, 『사목연구』 35(2015/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99~100쪽.

86)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의 선교활동에 대한 교령』, 2항.

에 복음을 선포하였다(마르 16, 20)고 하였다.

“그들은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가게”(시편 19, 5)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이 거룩한 명령을 기억하며, 세기의 흐름 속에서, 세상 모든 곳에, 하느님 말씀의 전파자들과 봉사자들을 파견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가져다주신 영원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⁸⁷⁾

교황 요한 23세는 1959년에 『으뜸 목자』(*Princeps Pastorum*)에서, 신자를 포함한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구원 사업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에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모든 신자는 복음화의 능동적 주체이며, 선교하는 제자라고 하였다.

“평화로운 전투를 벌이는 어디서든지 교회는 여러 등급의 교계뿐 아니라 순수한 평신도 계층이 포함된 완전한 조직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구원 사업은 모든 계층에 의해서 동등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⁸⁸⁾

“세례받은 모든 이는 교회 안의 역할이나 신앙 교육의 수준에 상관없이 복음화의 능동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복음화 계획은 전문가들이나 수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신자들은 그저 수동적인 수용자라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세례받은 모든 이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복음화 활동을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분명히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선포하는 데에 오랜 준비나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제자’와 ‘선교사’가 아니라, 언제나 ‘선교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⁸⁹⁾

87) 참조: 베네딕도 15세,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 1919), 1항; 비오 12세, 『복음의 선포자들』(*Evangelii Praecones*, 1951), 34~35항.

88) 요한 23세, 『으뜸 목자』(*Princeps Pastorum*, 1959), 28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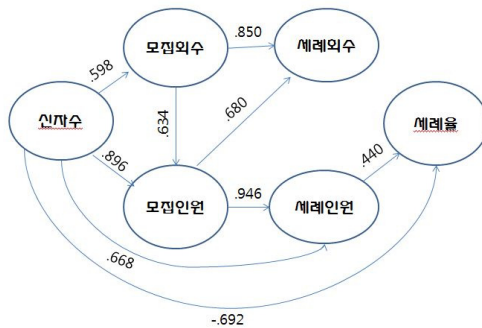
89)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120항.

해가 갈수록 교세가 위축되어, 천주교회의 근간인 성소자가 감소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교황들의 계속된 선교에 대한 관심 촉구는 뒤로 미룰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성당을 찾으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는 해당 본당에서 예비 신자를 담당하는 수녀와 같은 담당자를 기다려서 만나야 하고, 만나도 예비자반이 시작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선교를 위해 말도 안 통하는 먼 나라에까지 가서 선교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성당에 입교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을 탈락자 없이 안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대부분의 성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세 위축을 중단하려면, 언제 누가 성당을 찾아와도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지 않는 한, 성당과 관련된 요인 때문에 중도 탈락하게 하는 요인들은 제거해야 한다.

곧 성당에 가면 언제나 배울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예비신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예비자 모집 회수를 줄이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교구내의 지구 본당들이 팀워크(teamwork)를 발휘하여 시차를 둔 예비자 교리반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과정을 이수하면 소속 본당에서 세례를 받는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의 [그림 4]와 같은 매커니즘 때문이다. 수원교구에서 10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세례율을 높이는 데는 세례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집회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집회수를 늘려서, 모집 인원을 늘리고, 이들로부터 더 많은 세례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세례회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림 4] 세례율과 관련된 변인들 사이의 관계들⁹⁰⁾

가능하다면, 지구내의 각 성당이 다양하게 시작하고 끝나는 예비신자 입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바쁜 직장인들과 같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 통신교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점제” 운영도 과감히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선교 사명의 원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맺는 인격적 만남이 있고, 그 만남으로 새롭게 발견한 하느님의 자비가 이 시대의 새로운 선교 열정의 동인이 되므로,⁹¹⁾ 예비신자뿐 아니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도 문을 개방하여, 본당 공동체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부수효과를 얻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1.2. 예비신자 교육의 내실 강화

초대교회의 예비자교리 기간은 3년이었다.⁹²⁾ 그러나 천주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고 신자수가 늘어나면서 교리기간이 단축되었다. 필자는 지금의 예비신자 교육기간을 6개월에서 늘릴 필요가

90)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 『통계로 본 수원교구 10년의 속내(1999~2008년)』, 천주교수원교구, 2013, 30쪽.

91) 한민택, 「시노드적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선교사명」, 『경향잡지』 114:1 (2022.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63쪽.

92) M. E. Nelson, “Catechesis and baptism in the early Christian church”, *In die Skriflig* 30:4(1996), p.446; 히벨리투스, 『사도전승』, 이형우(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1992, 119쪽.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부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완되어 있는 입교과정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본당에서 수없이 반복 검증된 것이지만, 현재의 대부모 제도는 개편이 필요하다. 누군지도 모르고, 세례 당일이나 한 두 주일 전에 갑자기 부탁받고 대부모를 서는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세례를 받기 위한 장식품으로서의 대부모는 대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고,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18년에 『사도전승』(Traditio apostolica)을 펴낸 로마의 성 히폴리토(Hippolytus)에 의하면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은 세례 전에 그들의 삶에 대해 점검을 받았다. 삶의 성실성, 과부 공경, 병자 돌봄 등 어떤 선행을 했는지도 확인받았다. 인도자들도 자신이 인도한 사람들에게 대해 증언을 해야 했다. 이후에야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⁹³⁾

초대교회 때처럼 예비신자의 직업도 따져보고, 예비신자의 선행을 확인하고, 인도자에 대해서도 증언을 들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찰고 때 기도문 암송을 주로 보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삶의 검증까지 고려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대부모가 입교과정 초기부터 대자녀를 영신적으로 도와, 대자녀가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3.1.3. 미사 전례를 삶의 중심으로

예비신자가 아닌 신자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대림절과 사순절과 같은 특정한 전례시기에 맞추어 특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특강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많이 수강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잘 모르기에 배워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93) 히폴리투스, 『사도전승』, 이형우(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1992, 122~123쪽.

저런 이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매번 듣는 신자들을 위해 매번 특강의 수준을 차등화해서 높여가는 것도 아니다. 평화방송 등에 나오는 대중적인 강사가 오면 신자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나 그 강사의 강의가 평화방송에서 듣는 강의와 다른 그 성당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강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가장 효과적인 강의는 미사전례를 이용하는 것이다. 강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자들이 미사를 전례 현장 48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수 있도록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은 그 내적 활력으로 고백되고 찬미되며 기도로 생활화할 것을 요구한다.”⁹⁴⁾ 그리고 “교리교육의 근본과업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거행하며 관상하도록 돕는 모든 과정이다.”⁹⁵⁾ 따라서 평신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찬미하고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거행하며 관상하도록 돕는 것이 평신도 교육구조 개편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⁹⁶⁾

이를 위해 신자들이 매 주일 미사 전례를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평신도 교육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신자가 미사를 의무적으로 봉헌한다. 신자들이 한 주간 동안 주일미사의 복음을 새기고, 이를 삶으로 살아내고, 다음 주일 미사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체득된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기억과 상처를 거룩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3.1.4 교회와 신자의 교육 협업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천주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도로서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평신도는 교회가 제공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신도가 사회 속에서 복

94) 『교리교육총지침』, 84항.

95) 같은 책, 85항.

96) 천주교인천교구청소년사목국, 『복음자리 길잡이: 신앙교육 서포터즈』, 2021, 2-5쪽.

음화를 위한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회는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가능한 협조하며, 기타 필요한 것은 평신도가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수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신도들이 성장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소모품으로 대우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평신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가 없다. 따라서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평신도들의 성장을 통해 교회공동체가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본당공동체를 교육사목공동체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회공동체와 평신도의 교육협업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공동체 사목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평신도에게 교회가 교육을 포함한 기회를 제공하고, 평신도는 교회 공동체가 제공한 도움으로 복음적 삶의 기쁨을 누리며 성장하고, 가정에서 얻은 구체적인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경험을 교회 공동체에 피드백해줄 수 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는 신자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서 서로 간의 교회적인 연대(ecclesial solidarity)를 추구한다.⁹⁷⁾ 그러므로 평신도가 복음화를 위해 본당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대할 수 있도록 교회의 배려가 필요하다.

3.2. 교육과정 변화

‘공의회’의 진정한 결실로, 1585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임시총

97) 정희완,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 『가톨릭신학』 29(2016), 한국가톨릭신학학회, 108~109쪽.

회가 교리교육을 위한 도구로 요청하고,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가 협력하여 마련한⁹⁸⁾ 『가톨릭교회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에서는 “가톨릭교회교리는 신앙고백, 전례와 성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기도편으로 구성되어 있다”⁹⁹⁾고 천명하였다.

3.2.1. 획일적 교육에서 다변화된 교육으로

신자 집단은 동질적이지 않고, 다층적이다. 예를 들어 축구와 야구, 당구와 같이 다양한 관심사와, 연습생, 2부리그 출전, 1부리그 출전, 후보와 주전 등 다양한 처지에 놓여있다. 당구 연습생과 축구 1부리그 주전, 야구 2부리그 후보에게 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시할 수는 없다. 신자들의 신심 수준은 나이와 성별, 직업, 신자 기간 등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이제까지 교회는 신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시행해왔다. 이를 개편하여 다변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소한 적극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와 소극적 신자처럼 명확히 욕구가 다른 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능하다면, 가능한 비슷한 신자들을 모아 교육하거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본당에서 검증된 대로, 인보성체수도회의 부모와 함께 하는 첫영성체 교리반 운영에서 얻는 가장 큰 수확은 첫영성체 교리를 같이 한 욕구가 같은 부모들의 친교공동체 구성과, 이를 통한 본당 공동체 활성화이다. 속지주의 원칙이 무너지까 봐 걱정할 만큼 교회가 여유롭지 않다.

속인적 성격이 될 이들 교육반을 본당 공동체와 어울리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 붕괴된 상태를 벗어나야 하는 긴급 사태를 해결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속인적 성격의 교육기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리고 본당 공동체와의 쉽지 않은

98) 베네딕도 16세, 자의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 2011), 3항.

99) 『가톨릭교회교리서』, 13항.

조울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2.2. 단계별 교육에서 과업별 교육으로

“믿음의 문(사도 14,27)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 이 문에 들어선다는 것은 평생 동안 이어지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세례로 시작되고(로마 6,4 참조),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 목적지에 이릅니다.”¹⁰⁰⁾

모든 사람은 성장하면서 발달적 변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각 발달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생애과업이 있다.¹⁰¹⁾ 이를 고려하면, 평신도들의 발달단계와 생애과업은 7성사를 중심으로 “예비신자(세례) → 견진 → 신자생활(성체성사, 고해성사) → 혼인성사(성품성사) → 병자성사”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을 부모 자녀와 관계로 살펴보면, “부모와 미혼 동거 → 결혼 → 자녀출산 → 부모로서 미혼 자녀와 동거 → 부모로서 기혼 자녀와 동거”로 이해할 수도 있다. 성사 중심으로 이해하면 교회는 평신도를 위한 은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부모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면, 각 단계마다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형화된 성사가 부재하다.

위의 두 발달단계를 합하면, “출생 → 유아영세 → 첫영성체 → 주일학교 → 청년 → 결혼 → 출산 → 장년 → 노인 → 병자성사(장례미사) → 자녀들의 연도”로 수정할 수 있다. 이때 예를 들어, 자녀의 출산과 산모/부를 위한 기도 → 미혼 자녀의 결혼 전에 드리는 기도와, 자녀 결혼 후 손주 출산을 위해 드리는 기도, 손주 임신 후 기형아 걱정을 덜어주는 기도, 자녀의 손주 출산 때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도, 손주 출산 후 감사하는 기도, 손주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도, 첫영성체처럼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바치는 기

100) 베네딕도 16세, 자의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 2011), 1항.

101) 김성희, 허혜경, 『유아발달』, 교육과학사, 1998, 3. 12쪽.

도 등 각 단계마다 주님을 찾는 기도가 다르다.

평신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생애 과업에 맞는 기도를 정형화해서 제공하거나, 본당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는 방식 등으로 각 가정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7성사가 완비되어 있으니, 때가 되면 성사를 청하십시오라는 자세로는 평신도들의 마음을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된 경험과 성직자들이 신자들을 직접 찾아 나선 모습, 성당에 못 가는 대신 집에서 묵주를 손에 쥐고 가족기도를 하는 모습, 성당을 가득 채운 시신들을 축성하며 혼자 장례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비통한 모습¹⁰²⁾은 하느님 은총의 통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3.2.3. 인지적 접근 교육에서 경험적 접근 병행 교육으로

신앙인에게 신앙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심화시켜/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리교육이다. 교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교리서 발간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인지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교회는 유아 신앙부터 청소년 신앙, 청년 신앙 나아가서는 사회와 연결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목 방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하여 깊은 연구나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³⁾

교회는 교회 가르침을 신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와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기존의 인지적 접근의 한계를 경험적 접근으로 보완하고, 이에 더하여, 신자들이 교회 가르침을 수용¹⁰⁴⁾

102) 장수희, 「바이러스의 시간, 성체성사의 의미를 생각하다 — 이탈리아 교회와 코로나」, 『가톨릭평론』 28(2020), 우리신학연구소, 114-117쪽.

103) 『한국천주교교리교육지침』, 13항

104) 보편공의회가 결정 가르침을 지역교회에서 수용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어지는 무엇을 단순히 기계적 그리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고찰, 나아가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앙의 빛 안에서 성숙한 판단을 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최현순, 「한국천주교회 안에서 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재수용’(récéption)의 현장」, 『신학과 철학』, 서강대학교

할 수 있도록 신앙감각을 키워주어야 한다. 신자들은 스스로 신앙 감각을 키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며, 이 세상을 성령의 뜻에 따라 복음화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식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제로 경험하게 된 전대미문의 생태적 위기는 이미 해오던 것들을 개선하거나, 기존의 체제를 손보아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거대전환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며, 교황이 그동안 요청해온 생태적 회심의 가능성을 살필 때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 수준에서 평신도는 상업어업이 초래하는 바다의 황폐화로 인한 환경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양어선이 잡은 물고기를 먹지 않고, 근해에서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먹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집단 수준에서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가톨릭 기후행동과 함께 연대하여 필요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피케팅이나 서명운동이나, 국민청원운동 등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¹⁰⁵⁾ 이후 직면한 생명 위기에 맞서, 다양한 기도운동, 피케팅¹⁰⁶⁾이나 한국생명운동연대와 연대하거나, 입법청원운동에도 함께 할 수 있다.¹⁰⁷⁾

조직체 수준에서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가나 정당을 지지하고, 기후위기에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정치가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나설 수 있다. 생명 위기에 맞서, 태아의 생명을 포함한 생명권 보장에 소홀한 정치가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나설 수 있다.¹⁰⁸⁾

신학연구소, 22(2013), 152쪽.

105)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현재 결정문』, 2019.4.11.

106) 이상도, “4월 11일, 생명 운동 새롭게 시작한다”, 『가톨릭평화신문』, vol.1602, 2021.2.28, 1쪽.

107) 이성효,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성명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형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4.15. 참조.

108) 태아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소극적인 방식과 함께 더 적극적인 방식도

천주교 신자로서 생태적 회심을 위한 생태 사도직의 함양에 인지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경험적 접근도 필요하다.¹⁰⁹⁾ 그리고 하느님과과의 인격적 만남 자체가 인지적 접근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천주교 신자로서 당연히 익혀야 할 믿을 교리와 전례 중심 교육, 신앙고백, 전례와 성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기도 교육에서도 인지적 접근의 한계를 경험적 접근으로 보완할 수 있다.

3.2.4. 사후교육에서 예방교육으로

사제의 시노달리타스와 친교 증진의 영적 리더십은 청년 평신도들을 삶과 신앙의 통합과 공동체로의 몰입으로 이끌었다. 이와는 달리, 권위주의적, 거대적 리더십과 하향식 의사소통은 이들을 조직 내 침묵 이후 냉담으로 이끌었다.¹¹⁰⁾ 한편 청년 신자들이 조직 갈등의 심화와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종교적 아비투스(미사 참례, 신앙생활 등)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어려움 극복 기제인 ‘신앙생활 심화하기’ ‘새로운 사목적 동반 수용하기’ ‘교우 네트워크 도움받기’ ‘근본-체험 현재화하기’를 통해 신앙 여정을 발전시키는 사례들도 분석하였다.¹¹¹⁾

정규현 오세일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듯이, 본당에서 좋은 성직자를 만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좋은 사제 만나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 환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공의회의 유용성을 이야기 해도 현장에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듯이, 성직주의의 지적도 지속

생각해볼 수 있다. 한 예로, 낙태의 부정적 의미를 희석하기 위해 ‘임신중지’라는 말도 고안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낙태라는 한자어의 모호한 뜻을 모르는 세대를 위해 직접적 용어인 ‘태아살해’와 같은 용어로 변경하여,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 문제이므로, 조직체 수준의 행동에 해당한다. 김선훈, 「코로나19 위기와 재생산권—필수공공의료서비스로서 임신중지」, 『페미니즘연구』 21:1(2021), 한국여성연구소, 47-84쪽 참조.

109) 정준교, 「기쁘게 사는 평신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그리스도사상』 29(2022),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48-250. 258쪽.

110) 정규현, 오세일, 「사제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사제 리더십 분석」, 『신학과 철학』 41(2022),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25쪽.

111) 같은 글, 26-31쪽.

될 가능성이 높다.

시노달리타스의 언급이 계속되고 있으나, 예전에도 이미 같은 이야기와 술한 변화시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쉽지 않을 사안이다.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교육방법론¹¹²⁾이 좋은 것은 알지만 실현이 어렵고, 인지적 교육의 한계를 지적해도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슬프지만 평신도가 배워야 할 내용에 ‘맷집’을 기르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세례를 받으면 병이 나을 줄 알았다가 빨리 치료가 되지 않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세례 받은 신자들이 모두 천사 같은 줄 알았다가 세례를 받고 어슬러보니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고 크게 실망하여 교회를 계속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압도적인 죽음의 문화에 맞서 희망을 안고 생명의 문화 편에 설 수 있을 예방교육의 준비가 필요하다.

4. 나가며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학부와 철학부의 평신도 개방 5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내 평신도 교육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학부와 철학부의 평신도 개방이 ‘공의회’의 정신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임을 밝히고,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세 위축과 성소자 감소현상의 의미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반전이 없으면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므로, 반전의 시도가 필요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평신도 교육을 통해 반전을 모색해보았다. 2021년 발간된 『한국청소년사목지침서』는 그동안의 한국교회 청소년사목의 실패의 원인을 청소년들이 하느님과 인

112) 김남희,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교육 방법론 연구—독일 사례에 비추어」, 『신학전망』 192(2016),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43쪽.

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데서 찾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한국교회 전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필자는, 반전이 되려면 천주교 신앙생활의 핵심인 미사참례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평신도들이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평신도들이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평신도 교육을 위해, 평신도들이 동질적이지 않은 다층적 집단이라는 점과, 향후 평신도 교육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평신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평신도 교육을 교육구조변화와 교육내용변화로 제시하였다.

교육구조 변화로는 ① 선교하는 제자공동체, ② 예비신자 교육의 내실 강화, ③ 미사 전례를 삶의 중심으로, ④ 교회와 평신도의 교육 협업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제안을 본당공동체와 함께 지구공동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리고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키워드로, 예비신자 모집과 세례과정에서의 지구공동체의 팀워크를 제안하였다.

교육내용 변화로는 ① 획일적 교육에서 다변화된 교육으로, ② 단계별 교육에서 과업별 교육으로, ③ 인지적 접근 교육에서 경험적 접근 병행 교육으로, ④ 사후교육에서 예방교육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평신도 집단의 다층성을 규명하고,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할 교육방안을 구조와 내용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실무적으로 본당공동체와 지구공동체에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실행 가능한 제안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실증자료를 통한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히틀리투스, 『사도전승』, 이형우(역주), 분도출판사, 1992.
- 강인철, 『한국 천주교회의 새신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 우리신학연구소, 2007.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법: 라틴어-한국어 대역(수정판)』, 1판 7쇄, 1989.
- 김성희, 허혜경, 『유아발달』, 교육과학사, 1998.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1855-200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07.
-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 『통계로 본 수원교구 10년의 속내(1999-2008년)』, 천주교수원교구, 2013.
- 천주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복음자리 길잡이: 신앙교육 서포터즈』, 2021.
- 『가톨릭교회교리서』, 주교회의교육위원회출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 교황청성직자성, 『교리교육총지침』, 1997.
- 천주교주교회의의교리교육위원회, 『한국천주교교리교육지침』, 2021.
- 천주교주교회의의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청소년사목지침서』, 2021.
- 천주교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 『2013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자들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 2013.10.13.
-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
- 제2차 바티칸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의 선교활동에 대한 교령』.
- 베네딕도 15세,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 1919.
- 비오 12세, 『복음의 선포자들』(*Evangeli Praecones*), 1951.
- 요한 23세, 『 으뜸 목자』(*Princeps Pastorum*), 1959.
- 바오로 6세,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폐막메시지』.
- 요한 바오로 2세,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
- 베네딕도 16세, 『믿음의 문』(*Porta Fidei*), 2011.
-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 Gaudium*), 2014.

2. 정기간행물

- M. E. Nelson, "Catechesis and baptism in the early Christian church", *In die Skriflig* 30:4(1996), pp.443-456.
- 경동현, 「팬데믹 시대, 친교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켜진 경고등: ‘팬데믹 시대의 신앙실천’ 설문조사 주요 결과와 의미」, 『가톨릭평론』 28(2020), 우리신학연구소, 10-21쪽.
- _____, 「평신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경향잡지』 110:4(2018.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3-19쪽.
- 경동현, 이미영, 「팬데믹 2년, 교회의 사목적 대응과 전망 그리고 가톨릭 시민의 가능성」, 가톨릭신문사, 2021.
- 구천우, 「성직생활의 회고」,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1855-200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07, 612-614쪽.
- Y. 풍가르, 「제2차 바티칸과 평신도」, 『신학전망』 6(1968),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4-12쪽.
- 김남수, 「태아의 생명권과 생명 수호운동」, 『경향잡지』 84:11(1992.1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39-43쪽.
- 김남희,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교육 방법론 연구-독일 사례에 비추어」, 『신학전망』 192(2016),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42-79쪽.
- 김선훈, 「코로나19 위기와 재생산권-필수공공의료서비스로서 임신중지」, 『페미니즘연구』 21:1(2021), 한국여성연구소, 47-84쪽.
- 김재득, 「청소년 사목적 정책 평가와 전망」, 청소년사목토착연구회, 『활기찬 청소년사목을 위하여』,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5, 506-523쪽.
- 김진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신학전망』 146(2004),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2-42쪽.
- 박진희, 오세일, 「가톨릭 청년 냉담자의 탈교회화 현상연구」, 『종교연구』 80:3(2020), 한국종교학회, 177-218쪽.
- 백신옥, 「미사 참례하는 날은 주모(主母)의 홍은(鴻恩)을 입는 날 — 김원영 신부」, 『상교우서』 39(2013), 수원교회사연구소, 2-3쪽.
- 김창렬, 「평신도도 입학이 허용된 대신학교 학제 개편에 대하여」, 『경향잡지』 64:3(1972.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36-238쪽.
- 신동철, 「우리나라 지역교회법 안에 나타난 평신도 법조문 연구」, 『가톨릭신학』 10(2007), 한국가톨릭신학학회, 135-174쪽.
- 신성우, 「학창생활 十五年」,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1855~200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07, 605~611쪽.
- 신한열, 「성소수자와 교회」, 『가톨릭평론』 32(2021), 우리신학연구소, 89~104쪽.
- 신현일, 「天主教 信者에 관한 意識調査 : 대구대교구 봉덕천주교회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1998),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3~218쪽.
- 오경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과거를 반성했다”, 『인천교구 주보: 빛과 소금』, 2009.7.19, 연중16주일.
- 오세일, 「한국천주교회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과 사목적 대안」, 『사목연구』 35(2015/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77~109쪽.
- 이관진, 「평신도가 본 오늘의 한국 평신도」, 『가톨릭신학과 사상』 13(1995), 신학과사상학회, 84~105쪽.
- 이성효,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성명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형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4.15.
- 임채룡, 『한국청소년 성윤리에 관한 윤리신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6.11, 89쪽.
- 장수희, 「바이러스의 시간, 성체성사의 의미를 생각하다: 이탈리아 교회와 코로나」, 『가톨릭평론』 28(2020), 우리신학연구소, 114~117쪽.
- 장신희, 「신자들의 미사참례」, 『가톨릭신학』 4(2004), 한국가톨릭신학학회, 302쪽.
- 전현호, 「Wien 교회를 통해서 본 가톨릭교회의 실상과 미래 전망」, 『가톨릭신학』, 24(2014), 한국가톨릭신학학회, 107. 82~94쪽.
- 정규현, 오세일, 「천주교 평신도의 사회 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신학전망』 214(2021),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168~216쪽.
- 정규현, 오세일, 「사제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사제 리더십 분석」, 『신학과 철학』 41(2022),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3~42쪽.
- 정용화, 「평신도가 바라는 교회: 본당 사목위원이 바라는 교회」, 『가톨릭평론』 18(2018), 우리신학연구소, 140~150쪽.
- 정준교, 「세월호 참사 이후의 청소년사목: 청소년 인권을 중심으로」, 『청소년사목연구: 동행』, 1:1(2015), 수원교구청소년사목연구소, 10~111쪽.
- _____, 「청소년 사목을 위한 생명 생태계 회심의 필요성 — 청소년 생명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사목연구: 동행』 2:1(2016), 천주교수원교구 청소년사목연구소, 109~163쪽.

- _____, 「사회교리에 따른 천주교 신자 청소년들의 신앙과 노동인식」,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청소년국, 『2018년 수원교구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소년들의 노동인식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 2018.
- _____, 「씨뿌리는 자세로 배려하고 동반하는 사목을」, 『청소년 사목의 현실과 방향: 2019 청소년사목 2차 심포지엄』,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소년국, 2019.5.21, 199~229쪽.
- _____, 「혼인과 가정공동체를 위한 교회와 청년세대의 대화: 사랑의 기쁨과 몸의 신학을 중심으로」, 『누리와 말씀』 49(2021), 인천가톨릭대학교, 311~380쪽.
- _____, 「팬데믹 이후의 주일학교: 영유아부는 필수」, 『한국가톨릭문화연구』 1(2022),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37~70쪽.
- _____, 「기쁘게 사는 평신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그리스도사상』 29(2022),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30~273쪽.
- 정희완,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 『가톨릭신학』 29(2016), 한국가톨릭신학학회, 81~125쪽.
- 조재연, 「한국 교회의 청소년 사목에 비전이 있는가?」, 청소년사목토착연구회, 『활기찬 청소년사목을 위하여』,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5, 494~505쪽.
- 편집부, 「유아세례에 관한 재고(再考)」, 『사목』 193(1995.0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46~54쪽.
- 최운경, 「나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젊은 부모의 신앙교육 고민」, 『가톨릭평론』 15(2018), 우리신학연구소, 108~116쪽.
- 최정근, 우광호, “[광복50주년 특별기획] 광복50년, 한국 천주교회를 조명한다 (중)”, 『가톨릭신문』 vol.1966, 1995.8.20, 5쪽.
- 최현순, 「한국천주교회 안에서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재수용(réception)’의 현장」, 『신학과 철학』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2(2013), 149~169쪽.
- 한국주교단, 「특별발표 한국주교단 사목교서: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교회」, 『경향잡지』, 1966.6.
- 한민택, 「시노드적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선교사명」, 『경향잡지』 114:1(2022.1), 59~63쪽.
- 한상규, “주일학교 청소년 노동인식 및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분석 결과”,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청소년국, 『2018년 수원교구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소년들의 노동인식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 2018.

황종렬, 「한국 교회 청소년 복음화의 어제와 오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와 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제23차 학술회의 자료집』, 2005.06.25, 26쪽.

3. 신문기사

Jerry Filteau, Unusual study asks former Catholics why they left church, National Catholic Reporter, 2012.5.23.

가톨릭신문, “미국 사회조사기구 ‘미사 참례율 감소’ 관련 조사”, 『가톨릭신문』, vol.2791, 2012.4.15, 8쪽.

이상도, “4월 11일, 생명 운동 새롭게 시작한다”, 『가톨릭평화신문』, vol.1602, 2021.2.28, 1쪽.

이지혜, “첫영성체 가정교리 해마다 줄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vol.1549, 2020.02.02, 1쪽.

평화신문, “사설: 복음화율에 앞서 미사참례율 높여야”, 『평화신문』 vol.1114, 2011.4.24, 2쪽.

4. 기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199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현재 결정문』, 2019.4.11.

국문초록

1972년에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이 신학부와 철학부를 평신도에 개방하였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평신도상의 변화에 따른 획기적인 조치였다. 지난 50년간 교회는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난 9년간의 교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교회가 지속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전이 없으면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차바티칸공의회에서 평신도에게 예언직 사제직 왕직이 있다는 이븐 콩가르의 혁신적인 평신도상이 수용되었던 배경이 유럽교회의 침체였듯이, 한국교회의 침체는 평신도상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제는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평신도들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1년 발간된 『한국청소년사목지침서』는 그동안의 한국교회 청소년사목의 실패의 원인을 청소년들이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데서 찾고 있다. 이것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한국교회 전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필자는, 반전의 계기를 교회 공동체와 평신도가 함께 노력하여 평신도들이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평신도들이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복음화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평신도 집단이 다층적이라는 인식과 교회공동체와 평신도의 협업의 필요성을 전제로, 평신도 교육을 교육구조변화와 교육내용변화로 제시하였다.

교육구조변화로는 선교하는 제자공동체, 예비신자 교육의 내실 강화, 미사 전례를 삶의 중심으로, 교회와 평신도의 교육 협업을 제안하였다. 교육내용변화로는 획일적 교육에서 다변화된 교육으로, 단계별 교육에서 과업별 교육으로, 인지적 접근 교육에서 경험적 접근 병행 교육으로, 사후교육에서 예방교육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실증자료를 통한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 주제어: 평신도, 선교하는 제자,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 다변화 교육, 예방 교육